

17호, 2019년 10월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서울숲 컨서번시

서울숲 현장스케치

설렘 가득 로맨틱한 하루,
설렘피크닉데이

서울숲 산책

챌린지가든 1편, 기둥정원 이야기

서울숲 다시보기

꿀벌대소동 프로그램 리뷰_양봉가와 함께하는 꿀벌대소동

위워크 기업 봉사활동_“대나무 로켓배송 갑니다~”

정원에서 놀자 프로그램 리뷰_“요정들아~ 잘 살아라~”

서울숲 현장스케치

설렘 가득 로맨틱한 하루, 설렘피크닉데이



9월 22일, 비 오는 초가을 날 설렘피크닉데이가 서울숲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결실'을 컨셉으로 서울숲 내에 조성된 설렘정원의 조성 의미를 살리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다양한 열매가 열리는 정원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작은 결혼식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요.

두 차례의 친환경 작은 결혼식을 진행한 '그대가 그린 그린(green)웨딩', 로맨틱한 재즈공연으로 이루어진 '설렘 피크닉 콘서트', 그리고 커플을 대상으로 한 '설렘 가드닝 워크샵', 이렇게 세 가지의 이벤트로 구성된 설렘피크닉데이 행사는, 설렘정원이라는 장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설렘정원의 컨셉을 확장해 기획한 첫 번째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그린 그린(green)웨딩

설렘피크닉데이의 메인이벤트인 '그대가 그린 그린(green) 웨딩'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두 커플을 선정해 설렘정원에서 친환경 작은 결혼식을 진행한 행사입니다. 지난 8월부터 다소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친환경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커플 사연을 공모해, 그중 두 커플을 선정, 결혼식을 진행했지요. 서울숲에서 이런 작은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두 커플의 특별한 사연이 이번 행사에 더욱 아름답고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구자일·김복수의 금혼식 - "친정부모님께 리마인드 웨딩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부모님은 경상북도 영천 시골 작은 마을의 농부입니다. 논과 밭 그리고 하늘을 벗 삼아 그린그린한 농부의 삶으로 일생을 지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서울근교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내 삶만 바쁜 듯이 전쟁처럼 살고 있습니다.

올해가 친정아버지 팔순이기도하지만 생신이 겨울이라 항상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밥 한 끼만으로 여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해 전에 진단받은 파킨슨병환이 더 깊어지기 전에 올해는 가을경에 미리 팔순 잔치를 계획하던 중 이 행사를 접하게 되었고 예전엔 전통결혼식을 하셨으니 이번엔 웨딩드레스 리마인드로 평생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훈·이세연의 언약식 - "착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저와 예비신랑은 만난 지 약 4개월 되는 장거리 커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왕복 400키로가 넘는 거리를 오고 가며 연애를 했습니다.

각자 서로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선한 마음씨와 한결 같이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에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자 결혼을



사진. 유청오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보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꾸준히 봉사를 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노숙자와 쪽방촌 주민인 평균연령 65세 이상 거의 100명이 계신데 그 곳에 녹내장과 백내장이 함께 와서 시력을 잃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결혼하는데 쓰는 비용을 절약하고 그분들에게 마지막 단풍을 볼 수 있는 가을 소풍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00명의 노인 분들이 가을 소풍 가시는데 드는 비용이 약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웨딩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시력을 잃어가는 어르신들께 생애 마지막 단풍을 선물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후략...)

친환경 스몰웨딩을 컨셉으로 설렘정원에서 진행하려던 결혼식은 태풍 타파 소식에 결국 실내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인 덕에 식장은 무사히 준비되었으나, 두 팀 모두 예쁜 정원에서 야외결혼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에 무척 아쉬워했는데요, 다행히 비도 바람도 예상만큼 심하지 않아, 오전에 진행한 리마인드 웨딩은 설렘정원에서 웨딩촬영을, 오후 결혼식은 설렘정원에서 피로연을 제외한 결혼식 전체를 보슬비를 맞으며 진행했습니다.

조금 춥고 약간은 젖기도 했지만, 결혼식의 주인공과 가족들, 하객들 모두가 만들어 내는 분위기만큼은 시종일관 밝고 훈훈했지요.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내꺼니까 나에게 만큼은 완벽한 것'으로 만드는 결혼의 마법(?)에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춥고, 불편한 것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순간이 온전히 주인공들의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설렘 가드닝 워크샵(a.k.a 공냥 워크샵)



커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렘 가드닝 워크샵은 11시, 14시, 16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18쌍의 커플이 참여해 자스민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랑의 기쁨',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꽃말을 가진, 향이 진한 자스민 나무 18그루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서울숲을 떠났지요. 커플들이 서로를 소개하면서 쑥스럽지만 서로를 부르는 애칭도 공개하고, 칭찬도 해보면서 시작한 이번 가드닝 워크샵은 끝으로 갈수록 돈독해지는 커플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심은 자스민 나무를 누가 어떻게 기를 것인지,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의논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상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겠지요. 결혼한 커플은 평소 서로에 대해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참여한 커플들은 '아이들 없이 둘이서만 될 해보는 게 오랜만이라 너무 좋았다.', '매번 맛집이나 찾아다니는 데이트만 하다가 이런 걸 하게 되어 너무 신선하다.', '나무에 남자친구 이름을 붙여줬다. 남자친구가 서운하게 할 때마다 애한테 풀 거니까 조심해라.', '와이프가 마이너스의 손이라 이번에 이 나무는 내가 정성껏 키워보기로 했다.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등의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부디 모두의 자스민 나무가 오래도록 예쁘고 건강하기를.

서울숲이야기 가득 넘쳐 흐른 음악

설렘 콘서트는 기존 야외무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을 서울숲이야기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습니다.

커다란 음향 장비와 악기들이 무대를 가득 채웠지요. 애초에 이런 공연을 하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설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나던 시민이 들어서 감상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해 많은 시민이 함께 즐기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로즈밴드(ROZZ BAND)와 재즈보컬 김현미, 정밀아, 두 팀의 노련하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소소하지만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곳은 날씨 탓에 아름다운 설렘정원을 100%로 즐길 수는 없었지만, '결실'을 테마로 한 행사답게, 시종 설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빛내주신 아름다운 두 쌍의 신랑신부와 100여 명의 하객, 열여덟 쌍의 설렘 가드닝 프로그램 참여 커플, 그리고 오며 가며 콘서트를 즐겨주시고 결혼식을 축하해주신 많은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많이 사랑하는 인생 가꾸시기를 서울숲 설렘정원이 기원합니다.

챌린지가든 1편, 기동정원 이야기



챌린지가든은 서울숲 습지생태원의 기동정원에 참여자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팝업가든 형태의 정원을 조성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서울숲 습지생태원 기동정원 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주요 오브제로 한 정원을 계획해 달라 주문하였고, 이에 응답한 팀들 중 심사를 거쳐 총 세 팀이 챌린지가든에 도전하게 되었지요.

기동정원은 서울숲 생태습지원 논습지와 유아숲체험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의 모양새로는 단순한 '부지'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원이라 부를만한 요소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동정원을 어떤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힌도화지라고 보았고, 콘크리트 기둥은 가드너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장치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원사들의 도전으로 멋지게 탄생할 챌린지가든 프로젝트가 출발하였습니다.

하는 뚝도유수지였습니다. 현재 제비먹이서식처와 유아숲 체험원이 있어 다양한 생태교육과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지요. 습지생태원은 서울숲 조성공사 중 가장 마지막까지 공사가 진행된 공간이고, 조성 과정 중 기존 구조물들을 철거하면서 구조물의 일부를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장치로 남겨둔 것이 바로 지금의 기동정원입니다.



사진. 유청오

기동정원이 위치한 습지생태원의 서울숲 조성전 원래 모습은 홍수 시 수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수량 입출조절기능을 담당

지난 8월부터 이 기동정원에 챌린지가든을 조성할 가드너를 모집하였고 이중 세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선된 세 팀은 9월부터 10월까지 기동정원에서 직접 팝업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10월 20일(예정)에는 세 팀이 직접 조성한 정원의 오픈파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원의 모습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첫 만남 (오리엔테이션)때 발표한 각 팀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아름답고 도전적인 정원을 머릿속에 함께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챌린지가든 챌린저들의 창의 발랄한 계획을 한번 만나볼까요?



콘크리트 기둥에 생명 불어넣기 _수다쟁이 가든

도시적, 인공적이라는 콘크리트가 가진 상징성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실제 답사를 가서 보니 자연과 잘 어우러진 독특한 장치였다.

기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천공의 성 라퐁타에서 영감을 얻어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것들에 생명이 깃들게 해보고 싶었다.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아직은 실행 면에서 고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둥에 캐릭터를 부여한 정원을 구성해 볼 계획이다.

자연이 주인인 공생의 정원 _도시정원사 471

서울숲 도시정원사 출신 팀. 시민참여정원 조성, 꿀벌정원 관리 등 서울숲에서 해 온 작업만 해도 여럿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공동체정원 공모 등 다수의 정원을 기획하거나 관리 해왔다. 서울숲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특히 길고양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도시에서 서울숲만큼 길고양이들이 행복한 공간이 별로 없다. 쉼터도 많고 먹이 주는 사람들도 많아 서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숲 고양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도 않는다. 이 친구들이 서울숲의 또 다른 주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정원을 기획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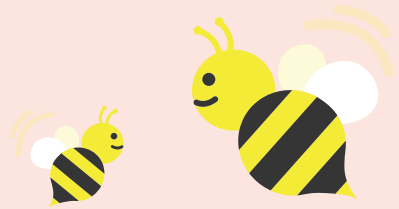
자연 스스로가 만든 것처럼 _자연정원

개인적으로 캠핑을 다니면서 인공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에 가 볼 기회가 많이 생겼었다. 순포습지나 석모도의 폐쇄한 염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제주 곳자왈 등, 자연스스로가 만든 공간은 큰 감동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챌린지가든도 자연적이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탄생시키고 싶다. 자연 스스로가 만든 자연 정원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콘크리트에도 이끼 등을 사용해 최대한 자연적인 느낌을 입히려고 한다. 면적이 작아 컨셉을 잡기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차를 주어서 극복할 계획이다.

① 챌린지 가든 프로젝트 관련 새로운 소식은 서울숲 홈페이지, SNS를 통해 만나보세요.

[꿀벌 대소동 프로그램 리뷰]

양봉가와 함께하는 꿀벌 대소동



글.사진 서울숲기자단 유서경

‘세상에서 꿀벌들이 사라진다면 4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꿀벌이 이 세상에서 크나큰 존재임을 느끼게 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8월말 서울숲에서 도시 양봉가 박찬(어반비즈서울 대표)과 함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꿀벌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체험에 앞서 어린이들이 꿀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체험에 앞서 꿀벌의 성별, 꿀벌의 생김새 등 OX 퀴즈를 통해 꿀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참여한 어린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꿀벌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꿀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꿀벌 정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꿀벌 정원으로 가기에 앞서 방충복을 입었는데요. 더운 날씨임



△ 방충복을 입고 꿀벌을 직접 만나는 어린이들

에도 불구하고 꿀벌을 만나러 갈 생각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한층 더 설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꿀벌을 만나보니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 ‘신기하다’, ‘무섭다’, ‘재미있었다’ 등의 대답들을 해주었는데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 아직은 꿀벌을 직접 만나는 일이 신기함 보다는 무섭다는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벌’ 하면 쏘여서 아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거겠지요. 아마도 조금은 더 시간을 들여 친해져야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꿀벌정원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다시 세미나실로 모여 채취한 꿀을 먹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먹어보고 맛있어하는 장면을 보고 궁금한 마음에 저도 먹어보았는데, 달콤하고 진한 그 꿀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 직접 채취한 벌꿀을 시식해보았다.

한 마리의 꿀벌이 평생 모으는 꿀은 5g이 전부라고 합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인데요, 저 많은 양의 꿀을 모았을 꿀벌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지요.

수업을 진행해 준 어반비즈서울의 박찬 대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는 이유는 ‘벌이 좋고, 귀엽고, 재미있어서’라며 어렵거나 싫은 점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서울숲에서 ‘좋고, 귀엽고, 재미있는’ 꿀벌을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숲에서는 많은 개인, 단체, 기업이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는 특유의 팀워크 때문인지 손발을 착착 맞춰 더 신나게 일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던 지난 16일, 위워크(We-Work)와 함께 서울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워크 직원 40명이 서울숲에 방문해 오전 내내 꿀벌정원 부근 대나무숲 일대를 깨끗하게 휩쓸고 가셨지요.



대나무 화단의 목은 대나무를 잘라주고, 자른 대나무는 다듬고 날라, 공원의 다양한 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하 호호’ 즐겁게 해주셨답니다.

서울숲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아름답고 부지런한 손길로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신청 : 서울숲.kr

<정원에서 놀자> 프로그램 리뷰 “요정들아~ 잘 살아라~”



자연에서 온 다양한 재료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요정집을 만들어보았답니다~

요정들아 새로운 집이 마음에 드니?
귀여운 우유갑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지난 9월 21일 토요일, 서울숲에서는 <정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요정집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풍 '링링'의 여파로 우수수 떨어진 나뭇가지, 솔방울 덕분에(?) 요정 집을 지을 재료가 한가득!!

다 먹은 우유갑과 다양한 자연물로 집을 만들고, 참여한 어린이들이 가방 가득 챙겨온 요정(작은 인형)들을 입주 시켜주면 완성~!



※ <정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019 서울숲 가을페스티벌

일시 19.10.12 (토)~13 (일)

장소 서울숲 전체

대상 시민 누구나

내용 '서울숲에서 열리는 가을 전시회'를 테마로 서울숲 전역이 전시관 되어 공원 곳곳에서 즐거운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문의 02-460-2905, 서울숲.kr



성수 도시재생 축제 꽃길만 걸어요

일시 19.10.19 (토)~10.20 (일)

장소 서울숲 가족마당

대상 시민 누구나

내용 체험프로그램, 전시, 영화 상영, 공연 등 진행

문의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 02-2286-7791



문화가 있는 날 축제 몽 DAY

일시 19.10.26 (토)
11:00~19:00

장소 서울숲 야외무대,
도시락정원 일대

대상 시민 누구나

내용 전시, 문화 원데이 클래스, 북콘서트, 청춘 마이크, 공연, 포토존, 휴식존 운영

전동 킥보드, 휠 등
모든 전동 탈것은
공원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이용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서울숲 중앙호수 준설공사 안내

서울숲공원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중앙 호수 수질개선공사를 시행합니다.

거울연못, 소원의폭포, 사슴사 등지의 계류를 중단하며, 오래된 퇴적물의 준설(물기제거 후 외부반출 예정)로 인해 공사기간 중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예정일: 2019년 11월 3일

중앙호수 준설토는 물기 제거 후 외부 폐기장으로 반출